

비휠체어 전용택시 폐지에 장애인 근심

광주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 폐지 수준

“휠체어 이용 안 해도 승·하차시 도움 필요해”

광주에 사는 선천성 지체 장애인인 이형일(47)씨는 20일 광주시가 내년 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전용 택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휠체어를 타지는 않지만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매일 같이 비휠체어 전용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

계단 이용과 환승이 어려워 버스는 탈 업무조차 내지 못했다.

이씨는 전용택시에 대해 “마음 놓고 탈 수 있다”고 평했다. 기사가 승·하차할 때 부족하거나 안전피

착용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기 때문이다. 영업용 택시와 달리, 안정적인 탑승 자세가 흐트러지 않도록 주행 속도를 낮추기도 한다.

이씨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가 사라지면 당장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차에서 내릴 때 비장애인 승객보다 몇 분이 더 걸린다. 일반 영업용 택시에서 내리는 데 급히 출발해 하마터면 다칠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전용택시 기사들은 장애인들이 겪는 고충을 알고 충분히 도와준다. 겨울철 빙판길·빗

길 등 거동이 불편할 상황 같으면 하차 직후에도 먼저 나서 부족을 해주는 편견·거리낌 없이 대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용택시는 장애인 승객만 탑승할 수 있어 배차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승차 거부도 없다.

당장 내년부터 운영 중단하면서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일부를 빼면 실수요자인 우리는 전혀 몰랐다. 전용택시 기사 들조차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하느냐”며 “시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3~6개월 만이라도 제도 유예기간을 두고, 대안인 바우처 택시 기사 인식 교육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들의 이동을 돕는 전용 승합차(116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전용 택시(입차 택시·89대), 바우처 택시(100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비휠체어 전용택시는 비장애인 승객은 태우지 않는다. 시는 개인 택시 기사와 1년 단위 임차계약을 체결, 월 28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택시는 이용 요금도 따로 받는다.

그러나 전용택시 기사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퇴직금 지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비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면 일정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250대까지 확대키로 했다.

/조일상 기자

시교육청, 재난대응훈련 우수기관

교육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재난 대응 능력 입증

광주시교육청이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불시에 실시한 불시기능점검 및 부서장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수

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소방차, 구급차 동원 학교 과 학실 폭발 및 화재 발생에 따른 진압 및 대피 훈련과 지진 및 화재 발생으로 인한 분청 전 직원 대피 훈련 등을 현장감 있게 실시했다.

이 밖에도 국외 수학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 훈련과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을 토론훈련 방식으로 진행해 평가를 이끌어 냈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복지행정, 전국 최고 확인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복지부장관 표창, 2개 분야 우수상



광산구가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정부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행정역량을 입증했다.

광산구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2022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역주민, 복지활동가와 함께 추진한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늘행’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동천교각 및 순천역 주변을 중심으로 노숙인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예비군 지역동대와 합동으로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영하의 한파 속 노숙인에게 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한파에 동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활동 중에 만난 품격교 및 노숙인 배모씨는 노숙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 노숙인 시설 입소를 설득했으나 강하게 거부해 동사 예방을 위한 핫팩 1박스를 전달하고 사회범죄 등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순천시 조곡동은 동장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유관기관 간 운영체계를 구축해 노숙인 보호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2회 노숙인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렛폼을 구축, 취약계층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연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건강식 맞춤형 반찬과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찾아 가는 선제적 복지서비스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광산구는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동기 기자

무안소방, 연말연시 화재·안전사고 주의 당부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다가오는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무안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화재·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탄절·연말연시에는 종교와 신년 행사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꼼꼼한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무안소방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화재 발생 시 큰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종교시설·숙박시설·문화집회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화재 예방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전남교육청 761명 정기인사 단행...4급 승진 1명

승진 113·전보 374·공로연수 등 220·신규 54명

전남도교육청이 4급 1명, 5급 15명 승진 등 2023년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761명에 대해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 인사에서 승진 대상은 총 113명으로 4급 1명, 5급 15명, 6급 66명, 7급 29명, 8급 3명이다. 전보 374명

이며 공로연수·정년(명예)퇴직 220명, 신규임용 54명이다.

4급 승진 대상인 박상길 총무과 인사팀장은 김대중 교육감 체제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사업무를 맡아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에 파견 발령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 훈련 파견 복귀한 이정도 서기관을 국제교육원

총무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강진교육지원청 선종관 행정지원과장이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옮겼으며 홍보담당관 마창우 공보팀장, 체육건강과 김성주 보건교육팀장 등 5명이 교육지원청 신규 행·재정지원과장으로 이동했다.

보성교육지원청 김선복 학교지원센터장은 분청 홍보담당관 공보팀장, 영암교육지원청 김영권 학교지원센터장은 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직했다. /박종배 기자

순천시 조곡동, 한파 속

노숙인 위험지역 집중 점검



순천시 조곡동에서는 지난 19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천교각 및 순천역 주변을 중심으로 노숙인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예비군 지역동대와 합동으로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영하의 한파 속 노숙인에게 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한파에 동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활동 중에 만난 품격교 및 노숙인 배모씨는 노숙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 노숙인 시설 입소를 설득했으나 강하게 거부해 동사 예방을 위한 핫팩 1박스를 전달하고 사회범죄 등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순천시 조곡동은 동장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유관기관 간 운영체계를 구축해 노숙인 보호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2회 노숙인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개통...도심 혼잡 완화

남광산나들목~남장성분기점 구간(L=9.7km) 신설

한국도로공사는 20일 오후 4시부터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구간 중 남광산나들목에서 남장성분기점까지 9.7km 구간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를 연결하는 광주외곽 제3순환도로 중 광주~장성 구간으로 지난 2015년 착공해 8년간 37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국지

도 49호선에 접속된 남광산나들목을 시점으로 호남고속도로의 남장성분기점까지 연결된다.

광주외곽순환선이 개통되면 인근 진곡산단, 하남산단 및 평동산단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물류비 절감효과를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전남 혁신 도시 및 전남 중남부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대도시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안 기자

특히, 해당 지역은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미끄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 취약구간에 결빙방지포장 6개소, 연수분사시설 3개소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으며,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장성119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광주외곽순환선 개통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